

홍명보호 1번 과제는 중원 조합 ‘플랜 B’

황인범 없는 9월… 변수 대비하는 기회 삼아야
FIFA 15위 미국, 13위 멕시코 상대 평가 2연전

‘황인범(페예노르트) 없이 떠난 미국 원정길에서 중원 조합의 플랜 B를 찾아라.’

황인범은 2022 카타르 월드컵을 앞둔 시점부터 출근 한국 축구대표팀의 불박이 미드필더로 활약해왔다. 지난해 7월 홍명보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뒤에도 대표팀의 ‘중원 사령관’은 늘 공수 조율에 능한 황인범이었다.

홍명보호가 치른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10경기 중 황인범이 선발 출전한 경기는 9경기나 된다. 못 뛴 한 경기는 부상 때문에 빠졌다.

그런 황인범이 미국 원정으로 치르는 이번달 A매치엔 출격하지 못한다. 홍 감독은 황인범을 이번 A매치 소집 명단에 포함했으나 그가 지난달 17일 소속팀 경기에서 입은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자 서민우(강원)를 대체 발탁했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5위 미국, 13위 멕시코 등 강호와 2연전을 통해 대표팀의 세계무대 경쟁력을 확인하고자 한 홍 감독은

로서는 황인범의 이탈이 아쉬울 수밖에 없다. 다만, 큰 대회에서는 언제나 주축 선수의 부상이나 징계가 변수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번 평가전을 중원 조합의 ‘플랜 B’를 발굴하는 기회로 삼는 건 북중미 월드컵에 대비한 좋은 포석이 될 수 있다.

홍 감독 역시 미국 원정길에 오르면서 “우리가 (중원에) 얼마나 다른 대안을 가졌는지도 중요한 만큼 준비할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A매치 기간을 중원 조합 실험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홍명보호의 중앙 미드필더로는 박용우(알아인), 백승호(버밍엄시티), 김진규, 박진섭(이상 전북), 옌스 카스트로프(뮌헨글라트바흐), 서민우 등이 있다.

박용우와 박진섭은 후반에서 상대 공격을 일차적으로 차단하는 데에 능한 힐링 미드필더다. 서민우는 이들과 비슷하면서도 수비보다는 활동량에서 상대적인 강점을 보인다.

백승호와 김진규는 이들 셋보다 공격적인 성향이 강하다. 특히 김



미국 뉴욕주 아이칸 스타디움에서 한국 축구 대표팀 선수들이 훈련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규는 올 시즌 소속팀에서 4골 4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카스트로프는 그라운드 전역을 중형루진 뛰어나며 공격과 수비에 모두 가담하는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로 분류된다. 거친 플레이를 불사하는 성향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누구를, 어떻게 짝 지우느냐에 따라 홍명보호 중원 플레이의 양상은 크게 달라진다.

홍 감독이 그간 즐겨 사용해 온 포백 수비라인 기반의 4-2-3-1 전술과 지난 7월 동아시아축구협회(EAFF) E-1 챔피언십에서 본격적으로 가동한 스리백 기반의 3-4-2-1 전술 중에서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도 중원 조합 선택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3-4-2-1을 쓰면서 양 윙백을 공격적으로 운영하고 2선 공격수들을 측면이 아닌 중앙 지향적으로 움직이게 한다면, 3선 중앙 미드필더 두 자리 모두에 수비에 능한 선수를 기용할 가능성이 커진다. 주로 공격 2선에 배치되는 이강인(파리 생제르맹)과 이재성(마인츠) 역시 중앙 미드필더 자리를 소화할 수 있다.

홍명보호는 7일 오전 6시(한국시간) 미국 뉴저지주 해리슨의 스포츠일러스트레이티드 스타디움에서 미국과 맞붙고, 10일 오전 10시엔 테네시주 내슈빌의 지오디스파크에서 멕시코와 격돌한다.

연합뉴스

김하성, 애틀랜타 이적 첫 경기 멀티히트

161km 공 쳐내 빠른발로 안타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로 이적한 김하성(29)이 새 유니폼을 입고 뽀얀 첫 경기에서 멀티 히트(한 경기 2안타 이상)를 기록했다.

김하성은 3일(한국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리글리 필드에서 열린 2025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시카고 컵스와 방문 경기에 6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2안타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214에서 0.227(88타수 20안타)로 상승했다.

김하성은 0-0으로 맞선 2회초 첫 타석에서 1루 땅볼로 물러났다. 컵

스 선발 투수 이마나가 쇼타의 초구를 건드렸다가 범타를 기록했다.

2-4로 뒤진 4회초 2사에선 유격수 땅볼로 아웃됐다.

안타는 3-4로 추격한 6회초 공격 2사 2루에서 나왔다.

김하성은 바뀐 좌완 투수 드루 포머랜스를 상대로 볼카운트 2볼 2스트라이크에서 가운데 물린 너클 커브를 밀어 쳤다. 공은 깨끗하게 1-2루 사이를 통과해 우전 안타가 됐다.

그는 9회초 승부처에서도 안타를 터뜨렸다.

2사 2루 기회에서 타격 기회를 잡은 김하성은 오른손 불펜 다니엘 팔렌시아를 상대로 2루 내야 안타



이적 후 첫 경기에서 안타 친 '애틀랜타 맨' 김하성.

연합뉴스

를 쳤다.

볼카운트 2볼 2스트라이크에서 바깥쪽 낮은 코스의 시속 161km 강속구를 건드린 뒤 손살같이 내달려 1루에서 셰이프 판정을 받았다.

애틀랜타는 김하성의 내야 안타

로 역전 기회를 잡았으나 후속 타자 옐리 화이트가 중견수 뜬 공으로 아웃되면서 3-4로 패했다.

김하성은 이적 후 첫 경기에서 빼어난 공격력과 안정적인 수비로 기대에 부응했다.

연합뉴스

올해 공무원 야구 최강은 ‘대구경찰청’

제주시장기 공무원야구대회
경기남부경찰청 14대4 제압

대구경찰청이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이며 제22회 제주시장기 전국공무원야구대회 우승을 거머쥐었다.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제주종합경기장 오라구장 등에서 전국 35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번 대회에서 첫 참가한 대구경찰청은 경기력으로 선보이며 정상에 올랐다.

대구경찰청은 강진군청과의 예선 첫 경기를 16대0, 수영구청을 기권승으로 꺾고 F조 1위로 16강에 올라 옥천군청을 10대0, 8강에선 예산군청을 8대7로 제압했다.

대구경찰청은 진안군청과의 준결승에서도 9대1로 승리한 후 지난 해 우승팀인 경기남부경찰청을 14대4로 완벽하게 꺾고 우승했다.

경기남부경찰청도 예선에서 서울소방재난본부를 13대3으로 꺾는 등 돋보이는 경기력을 선보였지만 2연패에는 실패했다.

제주에서는 지난 대회 준우승을 차지했던 제주경찰청과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시청 등 7개팀이 출사표를 던졌지만 제주시청과 제주자치도교육청 등 2개팀이 16강 진출했다.

제주시청은 전주시청과의 16강에서 10대11로 아쉽게 패해 8강 진출에 실패했고 제주자치도교육청도 준우승팀인 경기남부경찰청에 0대12로 패했다. 제주경찰청은 제주도교도소를 20대10으로 꺾었지만 해남군청에 9대10으로 패하며 16강에 오르지 못했다.

이번 대회에는 공무원 선수단 외에도 참가자 가족 등 2000여 명이 제주를 찾아 숙박·음식·관광 소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위령식기자 yswi1968@ihalla.com



제22회 제주시장기 공무원야구대회 정상에 오른 대구경찰청.

제주시체육회 제공

초클루·마르티네스·모리, 나란히 PBA 64강

국내 강호들도 64강 무사 안착

프로당구 2025-2026시즌 개막 후 3개 투어를 제패했던 챔피언들이 나란히 64강에 안착했다.

무라트 나지 초클루(튀르키예·하나카드), 다비드 마르티네스(스페인·크라운해태), 모리 유스케(일본·에스와이)는 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PBA 스타디움에서 열린 ‘SY 베리테움 PBA-LPBA 챔피언십’ PBA 128강전에서 나란히 승리해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다.

국내 강호들도 무난히 128강을 통과했다. 조재호(NH농협카드)는 윤균호를 상대로 승부치기 접전 끝

에 승리했고, 최성원(휴온스)은 이선웅을 3-1로 제압했다. ‘3쿠션 바이발’ 이충복 역시 김성민을 3-0으로 꺾고 64강에 합류했다.

한지승(켄즐저축은행)은 부라크 하사시(하이원리조트)를 상대로 이날 에버리지 전제 1위인 2.647로 3-0 완승하는 기염을 토했다.

여자부 LPBA 32강전에서는 ‘당구 여제’ 김가영(하나카드)과 스롱 피아비(감보디아·우리금융캐피탈)가 각각 송민지, 이마리를 3-0으로 완파하고 16강에 진출했다. 반면 차유람은 한솔기에게 세트스코어 2-0으로 앞서다 역전을 허용, 승부치기 끝에 고배를 마셨다.

연합뉴스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강극장 8:25 아침마당 9:30 KBS 뉴스 930 9:45 KBS 뉴스 제주 10:00 잇비트 물어보세요 11:10 사랑의 가족(재)	6:05 걸어서 세계속으로 트레블홀릭 7:00 TV 유치원 7:30 웃찾사 대한민국 8:50 생생정보 스페셜 9:30 일일드라마 여왕의 집(재) 10:10 KBS 아침 뉴스타임 10:30 인강극장 스페셜 11:10 셀럽병사의 비밀(재)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TV 전국시대 8:50 태양을 삼킨 여자(재)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찾아가는 푸라기교실 11:15 한글옹사 아이야(재) 11:45 팬티하이어2(재)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15 JIBS 아침 뉴스 7:40 모닝와이드 3부 8:40 J.방북 8:50 종문아침 9:55 SBS 10 뉴스 10:30 푸라기 탐구생활 11:00 보석아내 건강 수다(재)	9:20 사나수공업 기사다비드 봉 12:10 건축탐구·집 13:00 EBS 평생학교 15:10 고향한국 16:10 당동명 유치원 17:10 레인보우 버블렌 17:40 타타와 쿠키 오늘도 대모험 18:10 EBS 뉴스 18:30 PD로그
12:00 KBS 뉴스 12 13:00 KBS 네트워크 특선 헤드림 컴퍼니 14:00 KBS 뉴스 14:10 방과 후 초능력 14:4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15:10 백투더유지 시즌 2(재) 16:00 사사건건 17:00 KBS 뉴스5 17:30 탐나는 제주	12:25 동네 한 바퀴(재) 13:30 일일드라마 여왕의 집 스페셜 15:00 KBS 뉴스타임 15:15 월드 24 15:45 시간여행자 루크(재) 16:00 TV 유치원 16:30 누가 누가 잘하니 17:30 통통논쟁 따라잡기	12:00 12 MBC 뉴스 12:25 오늘N(재) 12:25 헬로카즈 TV생물도감2(재) 13:55 2시 뉴스 외전 15:55 테마여행 길 스페셜 16:55 5시 뉴스와 경제 17:10 건강 하우스 광있는 아침(재)	12:00 SBS 12 뉴스 12:45 풀라테스큐 13:00 고향이 보인다 14:00 뉴스파워 16:00 월드컵강산 GoGo 17:00 SBS 뉴스 17:35 JIBS 저녁 뉴스 17:50 역전의 부자농부	9:30 수중올레 10:00 골든타임 사수 11:30 우리동네 히어로 시즌1 13:20 네트워크 서울공방 14:10 제트기의 가치 재발견 시즌6 15:20 K-주주탐사대 16:10 공원에 반하다 17:10 보미리 18:10 탐나는 보이스 19:00 KCTV 종합뉴스
18:00 6시 내고향 19:00 KBS뉴스 7 제주 19:40 한국인의 밤상 20:30 일일연속극 대문을 잡아라 21:00 KBS 뉴스 9 21:35 KBS 뉴스 9 제주 22:00 다류 인사이드 22:50 KBS 뉴스타임W 23:30 이슈 픽 백과 함께 스페셜	18:00 경계선서트 18:35 2TV 생생정보 19:50 일일드라마 여왕의 집 20:30 육방방의 문제아들 21:50 공룡여행경비구역 중국 사연 23:10 토크 미니시리즈 트윅(재)	18:05 귀한집 19:05 생방송 연극복권 720+ 19:10 태양을 삼킨 여자 19:40 MBC 뉴스데스크 21:00 공감토크 소통의 고수 3 22:00 구해줘! 홈즈 23:50 달까지 가자 프리미어	18:50 생방송 투데이 19:50 SBS 8 뉴스 20:30 JIBS 8 뉴스 21:00 한밤 프로젝트 마이 텀 22:20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23:50 나이트리인	7:00 김현정의 뉴스쇼 9:00 그대 창가에 일렉스입니다 12:00 CBS 뉴스 14:05 이불꾸미의 여행기요 17:05 시사매거진 제주 17:30 저녁종합뉴스 18:00 한문상부 20:00 CBS 뉴스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 064)740-7331 / MBC 064)740-2432 / JIBS 064)740-7800 / KCTV 064)741-7723 / 제주CBS 064)748-7400 / TBN제주교토방송 064)717-8114				

오늘의 운세	4일
	36년 외출이나 활동 할 일이 생긴다.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는 지혜가 필요. 48년 문서운이 길하나 재물에 지출 또는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도 하다. 60년 갑작스런 만남이나 모임이 있다. 72년 분실, 건강증이 오니 물감·재물관리에 신중. 84년 생각이 잘 맞는 파트너가 생기거나 기쁜 소식이 온다.
	37년 의욕이 증기하고 활력이 넘치니 마음껏 활동. 49년 자식에 대한 일로 신경이 예민하고 추진하는 일은 다소 지체된다. 61년 자만하면 되던 일도 안되는 법. 여유와 이해가 필요. 73년 반가운 소식이나 초대할 일 생긴다. 85년 마음 고생이 심하니 번거로운 일을 만들거나 두 가지 일을 하면 몸살만 난다.
	38년 망신 또는 금전적 손해가 따르니 주의하며 주변사람을 다소 조심. 50년 좋은 기쁜 소식이나 이득이 있으나, 신경 쓸 일이 생긴다. 62년 물이 흐르듯 애착이 있었지만 풀려나. 안 풀린 굴이 깊어지고 다시 보기 어렵다. 75년 이성교제 다가온다. 기혼자는 가정불화. 87년 꿈자리가 뒤숭숭하다. 경정하지 마라.
	39년 생각이 깊어서 악수를 두는 격이나 긍정적 사고를 갖자. 51년 부하 직원이나 애착사람 때문에 신경이 예민해진다. 신규사업은 금물. 63년 사사로운 감정이 있다면 풀려라. 안 풀린 굴이 깊어지고 다시 보기 어렵다. 75년 이성교제 다가온다. 기혼자는 가정불화. 87년 꿈자리가 뒤숭숭하다. 경정하지 마라.
	40년 총연과 간연을 구별하는 귀가 필요. 52년 다양한 생각으로 고민이 많다. 의욕이 강한 활동인에게는 선택이 생긴다. 64년 자녀의 직업으로 동분서주. 세일즈는 매출이 증가. 계약이 원만하다. 76년 동업이나 창업은 심사숙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 즉흥적, 조급함은 실패의 원인. 88년 만남이 길하고 순조롭다.
	41년 순리에 따르면 만사형통. 서두르면 불리하니 여유를 가져라. 53년 건강에 무리가 따르니 원행은 삼가. 65년 일과 업무에 몰이 분주하다. 자식에게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77년 목표를 향해 적극 추진하라. 직장인은 변동하지 말 것. 89년 하는 일이 진척되지 않고 제자리 걸음만 걷는 것과 같다.